

“시위대 3명 사살해 직접 암매장 교도소 내 15구 묻은 것도 봤다”

5·18 계엄군
3공수 지역대장 참회의 고백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부대원과 함께 광주교도소 앞에서 민간인 3명을 사살해 암매장했다는 3공수여단 지휘관의 양심 선언이 나왔다. 이 지휘관은 교도소 남서쪽 담장 부근에 시신 15구 암매장도 했다고 증언했다. <관련기사 3·6면>
증언 지역은 5·18기념재단측이 이번 주부터 추가 발굴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지점과 가까운 위치인 것으로 밝혀져 암매장지 발굴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광주일보가 지난 11일 만난 5·18 당시 3공수여단 11대대 소속 지역대장 신모(69) 전 소령은 “부대원들과 교도소 정문으로 접근하는 시위대 차량에 일제 사격해 3명을 사살, 교도소 앞 야산에 암매장했다”며 “15대대 부대원들이 광주·담양간 호남고속도로와 인접한 교도소 담 인근에 구덩이를 파고 시신 2~3구씩 15구를 묻은 것도 봤다”고 밝혔다.
당시 광주교도소에는 3공수여단 11·12·13·15·16대대와 본부대대 등 6개 대대 1300여명의 계엄군이 배치됐었다. 육군 3사관학교 출신으로 5·18 당시 32세였던 전 소령은 11대대 소속 지역대장 4명 중 1명

담장에서 3~4m 떨어진 곳
2~3구씩 구덩이에 던져넣어
직접 가서 위치 지목하고 싶다

으로 광주에 파견된 영관급 지휘관이다.
그는 “현재 (5·18기념재단 등이) 옛 광주교도소에서 발굴 중인 곳에 12명이 묻혀 있었다고 들었는데, 내가 본 바로는 15대대 구역에 더 많은 시신이 매장돼 있다”며 현재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암매장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당시 15대대는 교도소 서쪽 담장(300m) 일대를 방호했으며, 전 소령이 이번 인터뷰에서 지목한 매장 장소는 구체적으로 교도소 남서쪽 담 모서리부터 북쪽으로 5~6군데다. 교도소 담장에서 3~4m 떨어진 위치로, 담장과 경계울 참호 중간 지점이다.
전 소령은 이와 관련해 “15대대원들은 나무가 무성한 숲길에 구덩이를 파고 시신 2~3구씩을 던져 넣은 후 흙을 덮었다. 매장 장소를 알 수 있는 표시는 하지 않았다”면서 “당시 시위대 차량이 접근하면 무조건 쏘라는 지시가 있었다. 우리 대대는 정문쪽 도로를 지키고 있었는데 고속도로 방면을 담당한 15대대쪽으로 민간인 차량이 다수 접근했다”고 당시를 기억했다.

그는 이어 “시위 차량에는 적게는 2~3명, 많게는 4~5명이 타고 있었는데 교도소에 접근했다가 총격을 당한 차량만 10여대에 이른다”면서 “사격으로 사망한 사람은 30~40명으로 추정된다. 다만 시신들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전 소령은 교도소 앞 도로를 지나던 트럭이 사격을 당해 도로 옆 개울로 빠져 전복됐다는 사실도 털어놔다. 이는 지난 9월 5·18재단에 암매장을 제보한 3공수여단 소속 부사관의 증언과도 일치한다. 전 소령의 증언 및 기억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이 부사관이 지목한 장소는 교도소 남서쪽 담장 인근이다.
“모든 것을 털어놓고 나니, 그동안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고통이 조금이나마 해소된 기분”이라는 전 소령은 “군인이라는 직업의식에 사로잡혀 좀 더 일찍 진실을 말하지 못해 (광주시민에게)죄송하고, 이제라도 당시의 처참했던 상황을 증언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또 “5·18재단 등에서 협조를 요청해 온다면, 교도소를 방문해 주둔 당시 직접 봤던 암매장지 위치 등을 지목할 수도 있다”며 “5·18 진상 규명을 위해 힘을 보탬 일이 있으면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역·일신방직 부지 도시재생뉴딜 추진

옛 국군병원 부지도...광주시, 내년초부터 순차적 신청

광주시가 내년 초 광주역 유류부지와 일신방직 유류부지 중 한 곳을 대상으로 도시재생뉴딜 경제기반형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옛 국군병원 이전부지는 장기 검토대상으로 분류됐다. <관련기사 2면>
시는 12일 “지난 9월 도시재생위원회 회의에서 ‘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수립구역(안)’을 자문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이 안을 다듬어 내년 초 광주역이나 일신방직 유류부지를 경제기반형 사업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에 신청할 예정이다.
용역(안)에 따르면 광주역 유류부지는 ‘아시아 신비즈니스의 출발지, 기적소리 광주역’을 비전으로 삼아 4차 산업 전진기

지 조성, 호남권 신경계중심지 조성, 아시아문화 관련 조성을 목표로 삼았다. 240만 3000㎡의 부지에 푸른길 연계 하이테크파크, 아이디어공작소, 드론광장, 쇼퍼센터, 어린이·청소년직업체험시설, 자동차에프터마켓, 영화관 등 상업시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홍보센터 등을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광주역 지하에 광주역 광장과 전남대 후문을 잇는 언더패스(Under Path)를 설치하겠다는 안도 제시했다.
일신방직 유류부지는 ‘문화산업을 통한 신성장거점, 첨단문화기술 클러스터 조성’을 비전으로, 첨단섬유산업 활성화, 창의적 역량 활용 문화기술산업 중심지 조성

등을 목표로 했다. 72만㎡ 부지에 R&D 연구 입주공간, 스마트섬유제작 공장, 방직박물관, 문화기술연구소, 스마트 문화광장 등을 조성한다는 것이 용역안이다.
옛 국군병원 이전부지(면적 140만3000㎡)는 ‘광주 근현대 역사문화 부도심, 시민통합공간’을 비전으로, 시민문화활동 중심지와 치유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경제기반형은 기존 기능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거기에 새로운 경제기능을 추가해 도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며 “광주역과 일신방직 유류부지 가운데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곳을 내년에 우선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일자리 만들어줘 감사합니다” 최근 엠코테크놀로지(주) 김주진(왼쪽·80) 회장을 광주시장 점견실에서 마주한 윤장현 광주시장이 큰절을 올리고 있다. 김 회장은 6·25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이던 자신을 온정으로 돌봐준 광주시민들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기업 일부 이전을 결정했다.

“6·25 피난길 받은 온정 이제 갚습니다”

광주 찾은 엠코테크놀로지 김주진 회장

1950년 6·25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으로 광주를 찾았던 10대가 60여년 후 기업가로 성장해 광주를 찾았다. 그는 과거 광주의 온정을 추억하며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다.
“엄동설한에 수 백 km를 걸어서 이동한 우리를 비롯한 모든 피난민들에게 따뜻한 음식과 머무는 곳을 제공했던 광주시민들로 인해 광주는 내 마음의 고향이 되었고, 그 사랑과 은혜는 반드시 갚고 싶은 빛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엠코테크놀로지(주) 김주진(80) 회장. 50년 전통의 세계적 반도체 패키징 기업인 엠코테크놀로지를 2대째 이끌고 있는 김 회장은 올 초 한국 본사를 인천 송도로 이전하면서 생산라인과 인력 일부를 광주로 이전했다. 500여 명의 근로자를 추가 증원, 광주시업장의 근무인원은 4000여 명 규모로 늘었다.
송도와 광주를 쌍두마차로 ‘백년기업 엠코’를 이끌겠다는 것이 김 회장의 포부다.

올 초 생산라인 광주 이전
인력 4000여명으로 늘려
“광주는 내 마음의 고향”
윤시장 만나 큰 절 받기도

최근 김 회장은 비공식일정으로 광주를 방문, 윤장현 광주시장과 만났다. “광주에 항상 고맙고 빛진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김 회장에게 윤 시장은 “일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며 ‘큰 절’을 했다. 갑작스런 김 회장이 윤 시장을 일으켜세웠다.
사실 그는 지난 1년여 동안 윤 시장과 4차례에 걸쳐 면지를 주고 받으며, 광주의 비전과 계획에 공감했다.
“친환경자동차와 에너지신산업으로 4차 산업혁명을 빠르게 준비하고 있는 광주를 통해 미래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선전께서 50년 전 ‘반도체’라는

불확실한 미래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졌지만 시대를 앞서가는 해안으로 오늘의 엠코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반도체 사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내다보고 광주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생각이다.
윤 시장은 60여 년 전의 온정을 기억해준 김 회장에게 “피난길에도 지금도 광주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따뜻한 정’”이라며 고추장과 된장 한 단지씩을 선물했다. 윤 시장은 “시대를 앞서가는 기업이 광주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자체가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소중한 동력이다”며 소감을 밝혔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HNT 하나투어

하나투어 온라인 여행박람회

2017. 11. 06(월) - 26(일)

| 올해의 추천여행지 필리핀

IT'S MORE FUN IN THE PHILIPPINES

Philippine Airlines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 총장점 062)228-1199

무안공항출발 해외여행!

나는 더 편하게, 더 다양하게 떠난다!

하나 Pack (캐주얼) AVPF10_VJ1

하롱베이 비경관광 포함
하노이·하롱베이·엔프 5일

총 상품가격 799,000원~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40~ / 선택경비 있음

17년 12월 30일~18년 1월 31일

비엳젯항공(VJ항공)

치맥/아식제공, 무제한 생수서비스, 특식3회(오삼 불고기, 락비엳레스토랑, 노니보쌈정식)

하나 Pack (클래식) ARPF01_ZA1

VIP 급행비자 포함
앙코르왓 4일·5일

총 상품가격 849,000원~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40~ / 선택경비 있음

17년 12월 30일~18년 1월 27일(매주 수, 토)

스카이앙코르항공

앙코르룸 특특이 투어, 특식 3회 (쌈밥정식, 디너뷔페, 수제)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안전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료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액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권일, 항공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함이다.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함이다. ■[여행상품 가격] 여행상품 가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가의 선박에 대한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여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특이한 상황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26004-1993-6 (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하나투어)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 호텔 2급호텔 이상 2인 1실/고급면 항공/버스/패키지(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창전/불편함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명업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과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선택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미 선택 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tour.com)를 참조해 주세요. 해외 안전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현황 1 ●여행 유의 2 ●여행 자제 3 ●철수 권고 4 ●여행 금지

H 여행, 하나면 돼! 하나투어에서 확인하세요.

|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